

2차전지, 한국-일본 경쟁 본격화

삼성SDI, 30개월만에 손익분기점 도달 ... LG화학 · SKC 분발

국내 2차전지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다.

삼성SDI와 LG화학 등 국내 2차전지 메이커들의 공격적인 투자에 힘입어 양산 개시 2년여만에 손익분기점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.

세계 전지시장의 90%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일본보다 3년이나 앞서는 것이어서 주목된다.

삼성SDI는 2002년 초 320만개 수준이었던 2차전지 판매량이 5월 500만개를 넘어서 사업을 시작한 지 2년만에 손익분기점을 돌파했다고 8월16일 발표했다.

특히, Sanyo, Sony, Toshiba 등 일본기업들이 평균적으로 양산 개시 5-6년 후 이룩한 수율 90%를 1년6개월 만에 달성해 삼성SDI의 2차전지 수익은 2002년 5-6월 2달 연속 흑자로 돌아섰다.

휴대폰, PDA, 노트북PC 등 모바일 단말기 수요와 컬러휴대폰 교체에 따른 수요가 증가해 리튬이온전지와 리튬 폴리머전지 등 2차전지 판매가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.

삼성SDI는 2002년 상반기에 2차전지 생산규모를 550만개에서 720만개로 30% 늘린 바 있는데, 시장상황에 따라 2002년 말이나 2003년 초 생산라인을 2-3개 정도 늘려 월 1000만개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.

이를 위해 2002년 295억원을 더 투자하고 2003년부터 2005년까지는 2300억원을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.

LG화학도 최근 2차전지 월 판매량이 320만개 수준으로 올라서 8월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. 삼성SDI와 마찬가지로 사업 개시 2년여만이다.

LG는 미래 핵심소재 사업인 2차전지 생산능력을 현재 월 350만개에서 2003년 상반기까지 700만개로 100% 이상 늘리고 2005년까지 1500만개로 확대해 일본 Sony, Sanyo와 함께 세계 빅3로 발돋움할 계획이다.

LG화학은 리튬폴리머전지 전량을 휴대폰용으로 팔고 있는데 2002년 말까지 80만개 증설을 통해 월 130만개 생산능력을 확보할 예정이다.

SKC는 2002년 4월 2차전지 사업에 뛰어들어 생산능력이나 판매량이 아직 미미하지만 삼성·LG와 마찬가지로 2년 정도 지나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.

SKC는 현재 월 25만개인 생산능력을 2003년 상반기까지 125만개 수준으로 늘리기 위해 증설을 추진하고 있는데, 2차전지 중에서도 차세대 2차전지로 불릴 정도로 시장전망이 밝은 리튬폴리머전지 생산에만 주력하고 있어 2003년 4/4분기나 2004년 1/4분기에는 수지타산이 맞을 것으로 보고 있다.

SKC는 단계적으로 생산라인을 늘려 2005년경 리튬이온폴리머전지 부문에서 2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계획이다.

2차전지는 한 번 쓰고 버리는 1차전지와는 달리 재충전을 통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지로 수은 등 중금속이 없어 인체에 무해하고 화재나 폭발 위험성이 없는 친환경적 제품이다.

휴대폰과 노트북, 캠코더, PDA 등 각종 휴대형 단말기 전원으로 쓰이며 원재료로 리튬화합물을 사용하는 리튬 이온전지와 폴리머를 사용하는 리튬이온폴리머전지가 대표적이다.

<Chemical Daily News 2002/ 08/ 29>